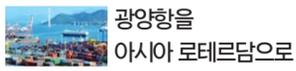


석유화학·해양 물류 복합 산업 클러스터 항만 조성



<1> 개항 33년만에 대변신

정부가 광양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의 로테르담'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메가포트로 하는 등 광양항과 부산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투 포 투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항만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광주일보에 광양항의 미래를 가능하고, 이번 계획에 담긴 발전 방안, 전남 항만의 비전 등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광양항의 숙원사업을 모두 담고 있다. 과거 정부 투자에서 소외됐던 광양항이 산업-R&D-고부가가치 물류가 집적화된 세계적인 클러스터 항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40년까지 20년간 투자 규모만 7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광양항 개항 이후 32년간(1987~2018년) 투자금액 4조 5000억원의 1.6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메가 포트로,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흔들렸던 위상도 보다 확고해졌다.

광양항은 과거 부산항과 함께 '투포투'이지만, 지난 2015년 인천신항 개항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인천항에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10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에서 광양항의 예산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항만별 사업비 투자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인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액(14조412억원)의 34%(4조9847억원)는 부산항에, 11.3%(1조6526억원)는 인천항, 고작 4.3%(6347억원)만이 광양항에 투자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년) 부산항 예산은 7935억원, 인천항 예산은 4510억원인 반면 광양항 예산은 65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광양항을 여수석유화학, 광양제철소 등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부두 및 항로 개선, 자동차 환적거점화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략 및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실망감도 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광양항의 제2도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양항, 목포신항 등 12개 신항만별 특화전략을 담은 것으로 정부 재정 16조1000억원, 민자 25조 8000억원 등 41조9000억원의 투자 계획이 담겼다.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메가 포트,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각각 개발하면서 13조6000억원, 7조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신항, 목포신항 등 서해권 신항만은 신남방-대중국 교역 기능 강화, 동해권은 대북방경제전진기지, 제주신항은 복합 해양관광항만으로 각각 육성·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항만 물동량의 증가를 앞두고 항만의 입항 매력도를 높이면서 스마트·친환경·서비스 다양화·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특히 광양항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그 모델로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에 상징성이 크다.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의 항만으로,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춰 북유럽 컨테이너 시장의 31%를 차지하며, 2033년 부지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석유화학 클러스터, 제철용 화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을 처리한다는데 광양항과 유사한 면도 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한·일 경제 전면전

정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맞서 수출 관리 강화 절차
지소미아 파기 검토 ... 국제 여론전 등 외교적 해법 병행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하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가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 경제 분야에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에 나서며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對)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9.6%보다는 작은 수치지만, 대한국 수입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하면 일본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방안이 상용조치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

미아-GSOMIA) 파기 등 안보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그트) 등으로 수집해 전달하는 대북 정보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파기가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치가 쉽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국방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이 진행되면 그 자체가 주

는 대내 및 대일 메시지가 특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여론전 등 외교적 해법도 병행한다. 우선 이른 시일 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상 미국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서물 밀 접촉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적인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한국 정부가 맞받아 치면서 한일 관계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감정적 대립 양상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재와 한일 양국의 보다 냉정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 워터풀에서 브라질 수구팀이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오늘 개막



조직위, 폭염 대책 강화

세계 수영 동호인의 축제인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특히 5일 개막을 시작으로 18일 폐막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한 각종 대책도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20·22면>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과 야외 수구경기장, 선수촌 등을 방문해 최종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마스터스 대회 체제로 전환한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의 마무리 작업 진행 상황과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회 시설 안팎에서는 경찰과 소방이 최종 안전 점검을 진행했고, 화장실 정비와 폭염에 대비한 쿨링포그(Cooling Fog) 가동 등에 대한 시설 준비도 마무리됐다. 수구 경기장 등 일부 재단장한 경기장에서는 이날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등

각국 수구 선수단들이 연습에 들어가는 등 경기장 시설 또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조직위는 특히 대회 기간 중 지속적인 폭염이 예보된데다 대회 참가자 중 노약자 선수가 많음에 따라 폭염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경기장인 남부대와 염주체육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는 선수권대회를 위해 설치된 1160m의 쿨링포그를 그대로 운영한다. 경기장의 쿨링존 3곳과 대형 쉼터 4곳, 그늘막 138곳, 이동식 냉풍기, 파라솔, 차양막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또 폭염 대책반을 운영해 경기장 주변에 2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살수차를 운행하고, 하루 8명의 의사와 85명의 의료인력을 비상 구급차와 항상 대기시킬 계획이다. 경기 풀은 적정 수온인 25~28도를 유지해 선수들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터스대회 특성상 600여 회의 많은 시상식이 진행됨에 따라 야외에서 일괄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폭염에 대비해 실내인 메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회 기간 중 관람객과 선수들에게는 각 경기장별로 출입구에 얼음 생수 1일 1만 병을 준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4만개와 수건 2만4000여개, 종이모자 4만5000여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보행안전 "서·고·요"

함께 지키면 더해지는 "교통안전"

도로에서는 **멈춰서** + **살피고** + **건너요** = 안전해요!

